

	논 평	충남도당
2017년 3월 8일(수)	대변인 : 박정현(010-3383-0068) 김 연(010-3355-4074) 담 당 : 우승윤 정책실장	
충남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281-2, 승지빌딩 5층 / 041-569-1500, 010-3406-5528		

4·12 재·보궐선거 천안시의원 나, 바 선거구 ‘무공천’

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(위원장 박완주)은 오는 4월 12일 실시 예정인 재·보궐 선거에서 천안시의원 나선거구와 바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.

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12조 2항에는 ‘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·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’고 명시돼 있다.

충남도당은 천안시 바선거구의 경우 2016년 1월20일 자진 탈당, 나선거구는 2016년 5월12일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통해 제명 조치하였으나, 결국 당선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재·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, 당헌 제112조 2항을 엄격히 적용하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.

아울러, 우리 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천안시 나, 바 선거구에서 재·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것에 대해 유권자 앞에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.